

연합뉴스TV

연평도 포격이후 남북관계 '시계제로'

입력 2013.11.22. 오전 9:05



연평도 포격이후 남북관계 '시계제로'

[앵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6.25 전쟁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교전중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는데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연평도 포격이후 3년간 험난한 남북관계를 이경희 기자가 진단해 보았습니다.

[기자]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8개월만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듬해 9월 취임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유연한 대북접근을 강조해 해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잠시 온탕과 냉탕을 오가던 남북교류는 같은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사태를 맞았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고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체제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1~2년 정도 대외접촉을 자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2012년이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발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사과여부는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2011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남북관계가 진전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들어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자며 남북대화를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주도한 김격식 총참모장을 해임해 남한을 향한 화해 제스처 아닌가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인 9월 북한이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키며 남북관계는 다시 안개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뉴스Y 이경희입니다.

(끝)

▶ 연합뉴스앱 ▶ 인터랙티브뉴스 ▶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036423>